

부뜸이(부항과 쑥뜸의 동시겸용치료기)의 구조적 특징과 부뜸요법에 대한 연구

류경호 · 이정원 · 김경철* · 양한조¹ · 박수영¹ · 김민영¹ · 남민우¹ · 김선희¹ · 김인숙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1:(주) 한지 기업연구소

Study on the BUDDEUMI Structural Character and Treatment

Gyeong Ho Ryu, Jeong Won Lee, Gyeong Cheol Kim*, Han Joe Yang¹,
Su Young Park¹, Min Young Kim¹, Min Yeo Nam¹, Seon Hee Kim¹, Yin Sook Kim¹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The research institute for BUDDEUMI of Han-Ji

"BUDDEUMI and BUDDEUMI's treatment" is a new remedy of the synchronous combination of cupping boil and moxibustion for the exclusion of human body's waste product. "BUDDEUMI and BUDDEUMI's treatment" wishes the reach for improving the effect of cupping boil and moxibustion by the synchronous combination. As the negative pressure of cupping and the hot cure of moxa are made up of BUDDEUMI structural character. The effects of BUDDEUMI's treatment are observed on the strengthening of skin bretation and the detoxification of blood waste material. Therefore "BUDDEUMI and BUDDEUMI's treatment" is expected for the healthy article of Senior-Friendly.

Key words : BUDDEUMI(부뜸이)

서 론

고령화시대가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05년 세계보건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73세, 여성은 80세로 나타났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모두가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한국도 이제는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시대가 되는 데에는 현대 의학이 그 한축을 담당했음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 과학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져 온 한의학은 그와는 반대로 비과학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제자리 혹은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많은 부분이 인술(人術)에 의해 이루어지고, 현대의학에 비해 관념적인 성격이 짙은 한의학 고유의 특성상 기준의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디지털화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눈에 띠는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감수하고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시대와 함께 만성질환과 성인병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나 둘 드러난 현대의학의 한계로 한의학에도 많은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질병 부위만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한의학의 전인치료원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의학의 기술들이 상당부분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 몇 가지 불편함만 개선되어 보급될 수 있다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한의학의 치료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쑥뜸요법이다. 쑥뜸요법은 쑥을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서 연소시켜 온열적 자극을 피하에 침투시킴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온열자극요법이다. 이것은 쑥이 연소 될 때 발생되는 열의 온열자극과 연소 시 분비되는 쑥액의 화학적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쑥뜸요법의 경우 많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쑥이 연소하면서 생기는 연기와 냄새로 인한 불쾌감으로 가정이나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화상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기간 쑥뜸치료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수단의 하나로 부항이 있다. 부항의 경우는 체표에 일정한 음압을 걸어주어 체내 혈관에 쌓여있는 노후된 혈장들을 혈관 밖으로 배출하게 만들어 혈액을 맑게 해주고, 근육통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그러나 부항의 경우 혈장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eu.ac.kr, · Tel : 051-850-8649

· 접수 : 2006/03/17 · 수정 : 2006/04/27 · 채택 : 2006/05/26

을 혈관 밖으로 배출을 하긴 하지만 몸 밖으로 까지는 배출시키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쑥뜸과 부항을 동시에 시술함으로써 두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상호 보완시킨 '부뜸이'의 구조적 특징과 이의 활용법을 살펴보자 한다.

본 론

1. 부뜸이 조립도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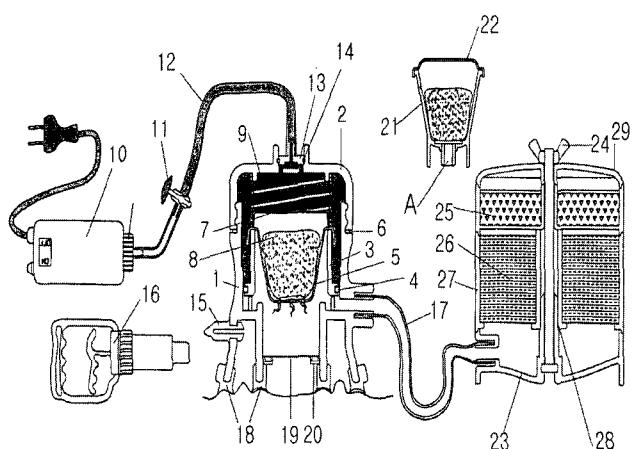


Fig. 1. 부뜸이 조립도 1. 물체, 2. 뚜껑, 3. 받침대, 4. 받침대링, 5. 항아리, 6. 연기차단용 오링, 7. 항아리뚜껑, 8. 쑥, 9. 스프링, 10. 공기발생기, 11. 공기조정밸브, 12. 공기주입호스, 13. 공기주입구, 14. 공기주입구용 오링, 15. 개폐기, 16. 흡인기, 17. 연기배출호스, 18. 실리콘파킹, 19. 여과용패드, 20. 패드고정틀, 21. 쑥 닦는 틀, 22. 쑥 훌륭개, 23. 훌타바닥부, 24. 나비너트, 25. 활성탄소부, 26. 훌타밸브, 27. 훌타케이스, 28. 팔프중심막대, 29. 훌타뚜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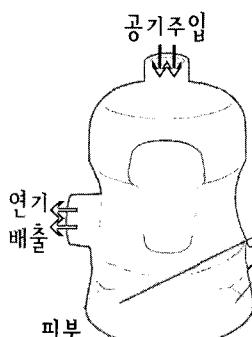


Fig. 2. 부뜸이 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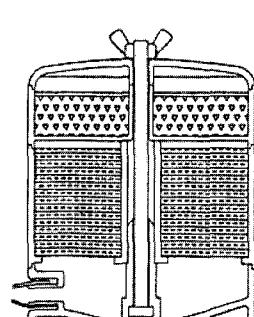


Fig. 3. 훌타 단면도

부뜸이는 쑥뜸의 열기와 연기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쑥이 연소하는 장소를 밀폐된 공간 안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쑥이 연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기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공기를 주입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쑥이 타는 동안 피부에 전달되는 온기는 45°C 내외에서 공기 주입량의 조절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화상을 입지 않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유지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쑥의 연소로 발생하는 쑥뜸의 연기는 공기주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몸에 부딪혔다가 연기배출호스로 빠져나가 훌타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Fig. 2와 같이 쑥 연기가 내려와 피부에 닿는 부분을 둘러싸고 몸체의 하단에 형성된 폐쇄형의 공간이 흡인기를 이용해 음압을 걸어 줄 수 있는 부항부이며 부항의 압력은 보통의 부항과 마찬가지로 진공압 600mmHg이다.

특히 쑥뜸 시술시 가장 불편했던 연기와 냄새는 연기배출호스를 통해 훌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훌타는 하단의 바닥부와 중간의 팔프부, 그리고 상단의 탄소부로 이루어져 있다. 즉, 연기의 형태였던 쑥뜸의 부산물은 훌타의 바닥부로 유입되어 중간의 팔프부에서 습기를 흡수하고 상단의 활성탄소에서 냄새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2. 부뜸이 개발의 의의

부항과 쑥뜸의 겸용치료기는 원리나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다. 하나의 치료기 안에 두개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 한 곳은 쑥뜸을, 다른 한 곳은 부항을 하는 단순한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리는 "부뜸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거론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현상들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침으로 찌르거나 찬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댓가 없이도 기존의 사혈요법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혈이나, 발포부항으로도 빼낼 수 없었던 많은 양의 걸쭉한 물질들이 피부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들이며, 부뜸이란 부항과 쑥뜸의 겸용치료라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기인 것이다.

이는 부항의 진공압이 일반원형으로 작용했던 기존의 부항과 달리 O자 형으로 작용하는 것과 함께 가운데 부분에 쑥뜸이라는 온열치료가 병행되는 부뜸이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가장자리로 작용하는 부항의 물리적인 음압으로 인해 피부가 부항부 안으로 당겨 올라가게 되고, 가운데 쑥뜸 부분의 모공은 더 많이 열리게 되어 쑥뜸의 온기와 효능이 피부 깊숙이 침투되는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쑥이 타는 공간을 밀폐된 공간으로 한정해서 위쪽에서 공기를 주입하고 특정 배출구로 연기가 빠지도록 설계한 구조로 전체적인 공기흐름을 컨트롤함으로써 쑥봉의 모양에 상관없이 쑥뜸의 온열적 자극을 피하 깊숙이 전달하고, 나아가서는 심부(深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쑥뜸의 온열 작용이 불활성화된 체액을 끓게 만들고, 부항의 물리적인 압력으로 체표의 모공을 통해서 피부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부뜸이의 구조적 특징이 특별한 이유인 것이다.

물론 아직은 부항과 쑥뜸을 동시에 시술 하였을 때 인체에 서의 반응이나, 그 기작, 시술후의 결과물에 대한 연구 등 많은 연구과제들이 남아있고, 기계적으로도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작용의 걱정이 없는 예방치료법의 하나인 부항과 쑥뜸을 사용하기 까다롭지 않게 활용하여 기존 치료법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부뜸이의 개발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부항과 쑥뜸의 겸용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분야에 대한 개발은 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 관념적인 의학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한의학의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가치에 비해 아직 많은 연구가 부족한 미개척 분야임을 많은 전문인들이 인지하고 부뜸이를 활용한 부뜸요법의 임상사례 및 치료효과의 연구와 함께 간단한 원리의 기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계적인 분야의 개발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3. 부뜸요법

부뜸요법이란 부항과 쑥뜸을 이용하여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어내는 치료요법이다. 현대의학으로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노폐물이란 담음이나 어혈 등과 같이 변성된 체액으로 판단된다. 변성된 체액은 모세혈관에서 세포까지 산소를 비롯한 영양물질의 전달을 방해하여 전체적인 순환기능을 정지 시킴으로써 질병의 원인물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체액이 변성되어 불활성화된 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과 담음인데, 이것이 만성염증과 섭유화과정을 거치게 되면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병의 원인이 노폐물 즉, 불활성화된 체액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부뜸요법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

부뜸요법은 부항과 쑥뜸을 동시에 사용하여 체내에 쌓여 단단해진 노폐물을 피부 밖으로 끌어낸다는 원리이다. 불활성화된 체액을 피부 밖으로 빼내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던 상태에서 침은 임시방편적인 치료 수단일 수밖에 없었고, 약물 역시 노폐물로 인해 모세혈관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그 약효가 노폐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치료법으로는 원인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노폐물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으니 그 존재가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고, 관심거리가 된 바가 없으니 노폐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측정장비를 사용해도 쉽게 질병의 증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열증이라는 또 다른 질병의 변이를 만들어냈다.

부뜸요법은 가장 원시적인 치료방법이면서 가장 과학적인 시술방법으로 체내의 노폐물을 밖으로 끌어내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방법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쑥뜸의 연기와 온기가 정상적인 체액은 나오게 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즉, 콜라겐이 주를 이루는 단백질과 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의 불활성화된 덩어리들인 노폐물만 분해 시켜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뜸요법을 시술해 본 환자들의 반응과 결과는 기존의 치료법을 뛰어넘는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부뜸요법은 기존의 부항과 뜸을 함께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직접 시술하는 단순하면서도 간단하지만 치료의 효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새로운 치료 방법이다.

1) 기혈순환과 질병 그리고 부뜸이

기혈의 순환이 막히면 질병이 찾아온다. 그리고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혈이나 담음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어혈은 그렇다 치고 담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심지어는 담음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한의사들도 있다. 기(氣)라는 것은 또 어때 한가? 담음보다도 더 추상적인 것이 기(氣)라서 기의 순환이나 생성을 증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몸에 기가 하나도 없어서 시름시름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뜸요법이 그래서 특별한 것이다. 부뜸요법은 기혈의 순환을 막는 이러한 원인물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나서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놀라움을 확인했을 것이다.

한의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단히 우수한 의학임에도 불구하고 기의 존재나 기의 순환과 생성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까닭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부뜸요법으로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 생각했던 기의 생성과 순환의 문제를 노폐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되었으니, 기존의 한의학 발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두 가지 치료방법을 환자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획기적인 치료법의 선형적 모델로 적용될 것이다.

2) 부항과 쑥뜸의 동시 시술이 가능한 부뜸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적어도 두 명에 한 명 정도는 부항이나 쑥뜸 중 하나를 경험하였거나 식구들이 시술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한의학 차원으로 알고 있는 부항과 쑥뜸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것은 그 효능과 효과가 탁월하기도 하지만, 질병치료를 위한 번거로움과 비싼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화학적 부작용도 없을뿐더러 침술로 인한 인체의 긴장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시술을 중단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위험부담이 있지만 쉽고 빠르게 치료하는 현대의학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실제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부뜸요법은 이런 불편함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기존 의학과 쑥뜸에서 탄생 개발되었다.

부뜸요법은 이러한 부항과 쑥뜸을 동시에 시술하여 노폐물을 피부 밖으로 직접 빼내는 치료 요법이며, 부뜸요법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뜸이'라는 의료기구이다. 부뜸이는 간단히 설명하면 '쑥뜸으로 묶어진 노폐물을 부항으로 피부 바깥으로 빼냄으로써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치료요법'인 것이다. 모양은 도넛모양의 부항에 일반적인 컵 부항을 부착시킨 것으로, 바깥쪽이 부항부분이 되고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쑥뜸 부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쑥 봉을 가운데에 엎고 그 위에 부항 컵을 씌우면 쑥이 어떻게 타느냐고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부항부분은 당연히 쑥뜸부분과 분리되어 피부에 닿는 아래쪽에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쑥 항아리가 얹혀질 거치대가 놓여 있어 피부에 뜨거운 쑥뜸이 직접 닿지 않는다.

이렇게 부항과 쑥뜸의 동시치료라는 구조가 특별한 것은 부항과 쑥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원리에 있다. 부항을 하는 바깥쪽에서 진공상태를 만들어 피부를 당겨 올리면 그 힘

에 의해 한 가운데의 쑥뜸 할 자리는 땀구멍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늘어난 땀구멍으로 쑥에서 타는 열기와 온기가 우리 몸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된다. 이는 부항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 수록 환자가 쑥뜸의 온도를 뜨겁게 느끼는 것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안에서 쑥이 타도록 나사식으로 조립된 몸체의 뚜껑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쑥뜸 할 때 타는 온기와 쑥에서 나오는 신비스런 효능이 위로 다 날라가는 기준의 일반적인 쑥뜸의 원리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압착 밀폐된 부항 안에서 쑥이 타면서 내는 온기와 효능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공기의 자연스런 흐름에 의해서 피부에 부딪쳤다가 아래의 또 다른 호스를 통해서 연기와 냄새를 흡수하는 필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른 부뜸 온도와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온도 조절밸브를 부착하여 시술받는 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쑥을 태우는 냄새와 연기는 기존 쑥뜸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부뜸이를 개발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 바로 쑥뜸의 연기였다. 연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하는 도중에 윗집과 여러 차례 시비가 붙는 웃지 못할 사건을 겪었을 정도로 냄새와 연기의 문제는 심각하였던 것이다. 쑥뜸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입자는 약 3-5마이크로 메타의 크기여서 일반 부직포로 걸려내기는 쉽지 않다. 연기의 입자보다 적은 1-4마이크로메타 크기 정도의 종이라면 연기를 걸려낼 수 있지만 연기에 섞여있는 습기로 인해 종이가 젖어 3-4회 이상 쓸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고민 끝에 화장지 공장에 의뢰하여 문제점인 연기와 냄새, 습기까지 제거할 수 있는 훌타를 만들게 되었다. 무려 용달차 한 대 분량의 종이를 없애고 나서 성공한 지금의 훌타는 부뜸이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3) 쑥의 효능과 부뜸요법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강한 알칼리성을 띠며, 간에는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엽록소가 풍부하며 양질의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 덕분에 오래전부터 방향제나 입욕제등으로 널리 쓰여오고 있으며,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쑥의 그러한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없어도 쑥의 진가를 한 눈에 알아보고 실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해 왔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쑥으로 떡과 밥을 해먹었으며, 배앓이가 났을 때도 쑥을 달여서 마셨다. 코피가 터지거나 타박상으로 상처를 입어도 쑥을 찧어서 상처에 발랐다. 여자들의 산후조리에는 반드시 쑥을 이용했는데, 이는 쑥의 탁월한 효능인 지혈작용과 항균작용, 수축작용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혈액 및 기의 흐름에 이상으로 인한 어혈이 생기면 이를 제거하고 기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기혈을 순환시키고, 인체의 저항력 및 원기를 증진시킨다는 학술적 보고를 토대로 실제 질병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쑥뜸이다.

부뜸요법은 이런 쑥의 기능을 부항과 더불어 한층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시술로, 불을 붙인 쑥을 피부에 직접 태우는 쑥뜸이나 컵 하나하나의 공기를 빼주어 음압을 걸어 주어야 하는 기준의 부항을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장점만을 크게 부각시켜 개발한 획기적인 시술법이다.

4) 부항의 효능과 부뜸요법

부항요법의 원리는 피부호흡을 강화시켜 혈액을 정화시키는 이상적인 건강요법이다.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이 되는 모세혈관 속의 어혈을 부항기로 피하에 끌어내어 여과 분해하여 자가혈청 단백체로 만들고 진공의 힘으로 피하 세포 조직내의 가스 교환을 통하여 산소를 보충 시킨다.

한의학 및 민간에서 많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 부항은, 기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기혈을 잘 통하게 하고 인체의 저항력 및 원기를 증진시킨다. 부항의 모양과 종류는 다양하나 대부분 동물의 뿔, 유리, 플라스틱, 나무, 세라믹 등의 소재를 이용하고 있다. 부항 요법만도 하나의 부항만 불이는 단관법, 여러개의 부항을 붙이는 다관법, 부항을 붙였다가 떼는 반복하는 섭관법, 피부에 윤활제를 바른 후 부항을 부착하여 피부 위를 왕복시키는 주관법 등 다양하다. 또한 그 방식도 피부에 부항을 붙여 올혈을 일으키는 건부항, 피부를 침으로 찌른 후 부항을 붙여 출혈시키는 습부항, 피부에 부항을 높은 압력으로 붙여 피부발포를 일으키게 하는 발포부항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의 부항들은 많은 수의 부항들을 장시간 붙여야 하고 배 같이 피부가 두꺼운 곳에서는 발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항의 문제점들을 해소시킨 것이 진공부항원리를 이용한 부뜸요법이다. 진공상태의 부항기 뚜껑을 분리하여 쑥뜸을 하면서, 측면 부항기 몸체에 진공을 한 번 더 압축함으로써 노폐물이 있는 신체부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방법으로 노폐물을 피부의 피하층으로 끌어내어 만성질환의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치료요법인 것이다.

5) 부뜸요법의 효능

부뜸요법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끌어내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온열항암요법에 의하면 정상세포는 섭씨 50°C가 넘어야 응고(괴사)되는 반면, 암세포는 42-43°C에서 괴사된다고 한다. 암세포가 뜨거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술로 배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가열된 물을 복강 내에 계속 순환시켜 암세포의 괴멸을 꾀했던 난소암 치료법이 탁월한 결과를 보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암세포에 접촉시킨다는 것인데 원적외선 찜질방, 원적외선 매트 등 원적외선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항과 쑥뜸의 원리를 하나로 합친 부뜸요법 역시 열을 이용한 질병 치료이다.

부항의 음압을 이용해서 쑥뜸 할 자리의 땀구멍을 최대한 열리게 한다. 가장자리 쪽을 누르면 터져 나오는 여드름과 달리 가장자리 부항부분이 피부 바깥쪽으로 흡입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쑥뜸 자리는 상대적으로 피부 안쪽으로 공기를 흡입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해 쑥이 타면서 내는 열기와 효능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생기는 수포현상을 부뜸요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포현상은 혈관 내에 있던 변이된 체액이 피부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말하며, 질병의 종류와 깊이에 따라서 그 체액의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오렌지 색 물에서부터 걸쭉한 젤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분의 체액이 쏟아져 나오다가 어느 정도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처럼 피부

에 땄지가 생겼다가 떨어져 나간다. 만병의 원인인 노폐물이 제거되면 우리 몸은 하나 둘 원래의 기능을 찾아가게 되며, 세포 기능의 정상화, 적혈구의 정상화, 면역기능 상승작용, 혈액 정화 작용, 혈행촉진, 비만해소, 체질개선, 호르몬 분비 변화 효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부뜸요법은 뜸과 부항을 겸용하여 뜸의 온열작용과 부항의 정혈해독작용을 동시에 시술함으로써, 신체내에 축적된 만성적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이다. 즉, 뜸의 기능을 부항과 더불어 한층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시술로서, 불을 불인 쑥을 피부에 직접 태우는 쑥뜸이나 컵 하나하나의 공기를 빼주어 음압을 걸어 주어야 하는 기준의 부항을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피부호흡을 강화시켜 혈액을 정화시키는 장점만을 크게 부각시켜 개발한 시술법이다. 신체 노폐물의 제거 작용을 발휘하는 부뜸이는 21c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용품으로 각광받을 것이며, 차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양한조. 온세 양한조의 부뜸요법. (주)한지기업부설연구소, pp 52-72, 2005.
2. 양한조. 부항과 쑥뜸을 합한 기구 개발에 대한 연구. 최고경영자과정 제39회 수료 논문집, 2001.
3. 양승렬 외. 쑥뜸의 연소특성과 전기쑥뜸기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2). 1994
4. 황유진. 상용소형 쑥뜸의 열역학적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2001, 조봉관. 조박사의 생명공학 항암쑥뜸. 양서각, pp 3-5, 2002.
5. 김관호, 알기쉬운 부항요법, (주)매일건강신문사출판부, 2004.
6. 김용수, 분석의학을 통한 한의학의 이해, 들꽃누리, 1권, pp 286-299, 319-342, 2권, pp 209-271, 2003.
7. V.M. 딜만 저, 유병선 역. 뚱뚱한 사람의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 서문관, 1995
8. 김형렬. 형렬(亨烈)발포요법 시리즈 제1탄, 알코올 中毒 特殊療法 發明 體驗手記. 행림출판, 1991.